

송암시스템(주)

모든 기업들이 창의와 도전정신, 기술력 확보, 고객만족, 투명경영으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돋보이게 성장하고 안정된 경영을 하고 있는 전력전자 IT분야의 선도기업 송암시스템(주)을 탐방하고 회사와 이해규 사장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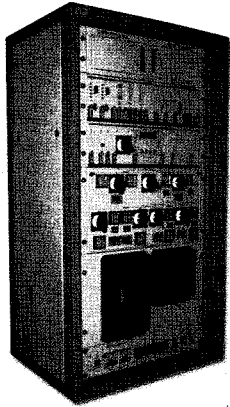
전력 전자 IT분야의 선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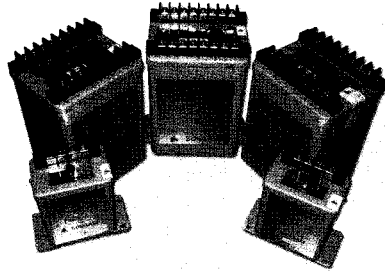
이해규 사장

송암시스템(주)은 1991년 2월 창업한 이래 전력기기의 IT분야에서 지속적인 R&D 투자로 국산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며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여 60여명의 직원으로 연간 매출 200억을 상회하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종합 IT전문기업으로 전력전자부문, 감시제어부문, 통신부문, 시스템통합부문(SI), 부가서비스부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창의와 도전정신,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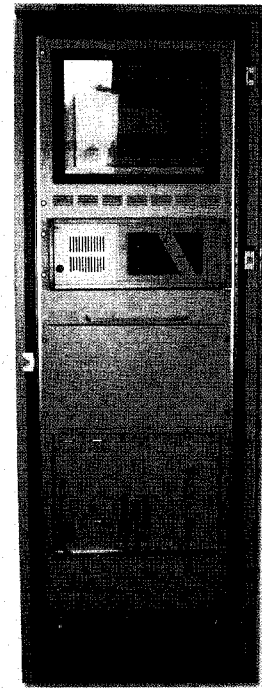
창업 당시부터 기술력을 갖춘 제품만이 살아남는다는 신념 아래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에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며 독자적인 기술기반 구축과 신기술 보유에 주력하여 그 동안 특허 8건, 실용실안 14건, 프로그램 13건의 신제품 개발과 국산화로 산업투자비를 절감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생산제품은 계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고객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일관된 일념으로 기획, 구축, 성능, 운영까지 모든 공정상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아무리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제품도 만들어 낸다는 의욕과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계통보호전송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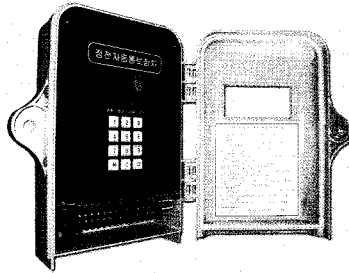
전력용변환기



음성녹음장치(D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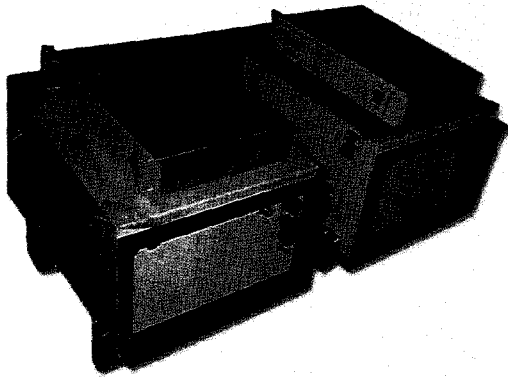
고장구간 표시기2



정전자동통보장치

그 동안 개발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살펴보면 전력계통을 보호하는 디지털 계통보호전송장치, 전력용변환기, 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용통신장치, 과부하경보기, 배전선로고장표시기, 수위/수문 개도 측정장치, 홍수 예/경보 장치, 디지털 음성녹음장치, 배전자동화용 광전송장치, 지하전력구 정보통신장치, 정전자동통보장치, 전력구 화재자동통보장치, 각종 전원설비의 제성능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전원설비자동측정장치 등 각 분야의 기술이 결집된 기술개발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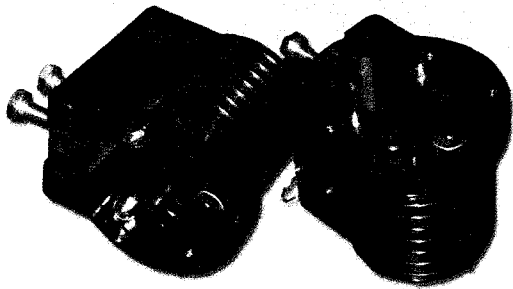
제품품질에 대하여도 생산자 중심의 품질관리에서 고객 지향적인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해규 시장은 품질관리도 다변화된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기업들의 불량률 감소나 생산성 향상 등 회사 내부의 생산공정 및 검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품질관리 기법에서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화된 고객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의 품질체제도 여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인 진단과 개선으로 품질시스템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하전력구 정보통신장치

그래서 품질관리도 불량률 감소가 아닌 불량개소 사전발견 및 개선에 역점을 두어 발견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개선제도가 전직원에게 생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과 아울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천한 결과 신제품개발유공자포창(산업자원부), 과학기술진흥유공자포창(국무총리), 유망선진기술기업지정(중소기업청), 유망전력벤처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취득(정보통신부),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및 계속적인 벤처기업지정(중소기업청), 수차례에 걸친 모범납세자포창(국세청)과 함께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된 기업이다.

앞으로의 경영목표에 대하여 이해규 사장은, 기업인은 쉬었다 갈수 없다며 끊임없이 우수한 신제품의 개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정보화, 자동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제품 생산에 주력할 것을 역설한다. 이사장은 오늘의 송암으로 성장한 배경을 생산한 제품 모두가 수입품을 국산화한 것으로 외국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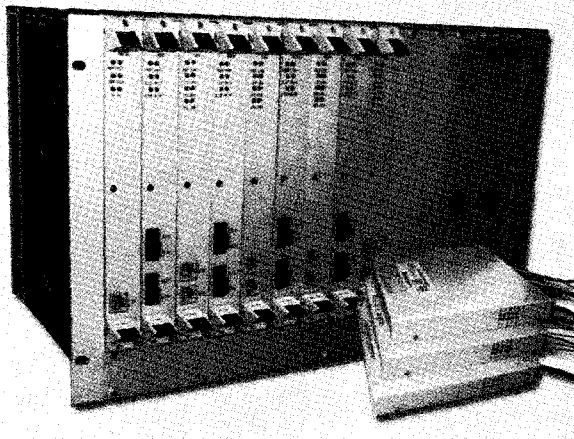


과부하 경보기

국내진출을 억제해 왔어도 국내 업체간 경쟁을 하지 않아 출혈경쟁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았으며, 동종 업체와 무리한 경쟁보다 투자에 모험이 따르더라도 미래 정보통신부문의 필요한 신제품 개발에 경영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소량 다품종이라 극심한 경쟁은 피할 수 있는 반면, 이것이 부각되지 않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한다. 남보다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사고력, 판단력과 이것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능력 있는 회사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큰

매출을 올리기보다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는 무리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투명경영으로 전력기기 IT분야에서 사회가 지향하는 선구자의 소임과 기업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강원벤처포럼 회장 등 사회활동도 활발



배전자동화광모뎀

이사장은 전기산업진흥회 이사, 전기
공업협동조합 감사 등을 역임하면서 중
전기기 및 전력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
여하였으며, 지난 3월 25일 국내 최고의
전산전문업체 집단인 한국전산업협동조
합의 새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국내전산
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고, 700여 조합원
들의 권익을 창출하며, 미래지향적인 전
산산업이 제 역할을 다해 국가경제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전기기 IT접목 기술개발에 주력

또한 재경 강원출신 벤처기업가, 강원지역 우수벤처기업 및 산학센터 모임인 “강원벤처포럼” 회장을 역
임하며 기업간 상호협조와 정보교환, 정보통신 분야의 관련지식 등을 공유하는 相生의 자리를 만들어 명실
상부한 “벤처산업의 메카”라는 알찬 결실을 맺는 활동도 하고 있다.

송암시스콤은 금년 전력기술과 정보통신(IT)기술의 결합을 통한 IT분야의 사업영역 다각화, 전문화로
재도약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전문요원을 영입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구축회사인 “송암통신서비스(주)”를 자회사로 발족시켜 정보통신사업의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갖추어
IT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꾀하고 있다. ■